

지역 현안, 시민 기부·후원으로 해결한다

광주시, 오늘부터 '제1회 크라우드펀딩대회' 개최

5·18 왜곡 대처 등 광주NGO재단 14개 프로젝트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시민들의 기부와 후원을 받아 해결하는 새로운 주민자치의 장(場)이 열린다.

광주시는 광주 NGO 재단이 최근 공모를 통해 제안한 14개의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6월 1일부터 7월 2일까지 한 달간 '제1회 크라우드펀딩대회'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소규모 후원이나 투자를 목적으로 웹 플랫폼을 활용해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모금하는

것을 말한다. 시민단체의 자발적 펀딩이 지자체의 지원까지 더해지는 이 크라우드펀딩은 지자체에서는 드문 사례다.

펀딩대회는 온라인사이트 소셜펀딩 플랫폼 상상트리(http://socialfund.co.kr)를 통해 진행된다.

대회 참여 프로젝트는 ▲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제작홍보 및 5·18 왜곡 대처' ▲남구 주민회의의 '로컬푸드 피망의 화려한 변신' ▲빛가람지킴이의 '애들이 놀자-

광주전을 생태환경교육현장으로' ▲무등노숙인쉼터의 '열악한 노숙인 쉼터를 위한 희망게이트 사업'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일제 피해자의 역사를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의 '골목에서 만난 독립투사' ▲전국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회 광주지부의 '투명한 관리로 행복한 아파트 만들기' 등이다.

기부·후원은 개인·단체·기업 누구나 가능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 '상상트리'에 회원가입 후 후원하고 싶은 해당 프로젝트를 선택해 원하는 금액을 입금하면 된다.

후원금액은 1회 5000원 이상 제한이 없으며, 결제기능이 없기 때문에 사이트에서

는 약정절차만 진행하고 본인 거래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 인터넷뱅킹으로 후원계좌로 입금하면 된다. 펀딩 참여자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도 발행된다.

프로젝트 모금 목표액은 적게는 200만 원부터 3000만원이다. 평균 500만원 가량이다.

광주시는 이 펀딩과는 무관하게 올해 167개 비영리 단체에 11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펀딩대상 프로젝트는 이 지원에서 빠졌거나 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펀딩 규모는 소규모로 예산이 부족하거나 미흡해서가 아니라 시민과 단체 등이 함께 참여한다는 의미가 더 크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광역지자체장 공약이행평가

윤장현 시장 SA 등급 '최고'

시민 소통·재정관리 분야



광주시는 윤장현 시장(사진)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시민소통과 재정관리 분야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평가항목은 시민소통, 재정관리, 공약이행완료도, 웹 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분야다.

광주시는 소통분야의 경우 시민이 직접 공약이행 상황을 점검 평가하는 시민배심위원단을 추천으로 선발하는 등 시민중심의 공정한 정책영향평가 체계 구축 등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재정관리 분야는 공약이행 재정 집행률이 59.1%로 전국 시·도 중 4번째로 높고 공약이행 실천계획서와 초기 및 현재 재정계획의 흐름이 잘 관리돼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공약이행 완료도는 170개 공약사업 중 ▲시민참여 플랫폼 구축 ▲인권지표실천 ▲저소득층 주택리모델링 사업 등 86개를 완료해 50.6%로 전년(42.9%) 대비 7.7% 포인트 향상됐다.

광주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7대문화권 사업 등 대형 사업은 전(前) 정부의 사업 축소, 국비확보 미흡 등으로 추진이 다소 지연됐으나 새 정부 공약사업에 포함돼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민선 6기 시·도지사 공약사항 2350여개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최현일기자 cki@kwangju.co.kr



해남 석호리 대지유적 고분군 전경. 이곳에서는 3세기 마한 시기 조성된 고분 50여기가 확인됐다.

문화재청 제공

해남 석호리 3세기 대규모 마한 고분군 발견

50여기...백제 때 사라진 침미다례 실제 밝힐 단서

해남에서 마한 해상세력이 3~4세기에 조성한 대규모 고분군이 발견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문화재청 허가를 받아 '해남 화산~평호 도로개설공사 구간 내 유적'을 발굴조사하고 있는 (재)대한문화재연구원은 지난 31일 마한 시기 대규모 고분군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남 안호리·석호리 대지유적은 해남반도 남서쪽 바닷가에 맞닿은 산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발굴조사 결과 마한 시기에 조성된 고분 50여기가 확인됐다. 매장시설은 100여기 정도의 목

관묘(나무 관 무덤), 직장묘(땅에 구멍이 파고 사체를 묻은 무덤), 옹관묘(항아리에 시신을 넣는 무덤) 등이며 약 100년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고분은 봉분 주위로 사다리꼴의 도랑을 판 마한 전통 무덤 양식으로 중앙에는 목관묘 혹은 옹관묘를 안치하고 외곽에 옹관묘와 목관묘, 직장묘 등을 추가 매장했다. 고분은 대부분 도랑을 공유하면서 맞물리게 축조하고 있어 같은 집단의 공동묘역으로 보인다.

고분에서는 단경호(목 짚은 항아리) 등 토기류와 함께 철도끼 등 철기류, 시신 목에

걸었던 구슬류 등 200여점 이상의 부장 유물이 발견됐다. 부장 유물을 검토한 결과 고분이 만들어지던 시기는 기원 후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전반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구원은 고분 주인들을 해남 백포만 일대에서 철기를 매개로 대외교류에 참여했던 마한 해상세력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일본 역사서 '일본서기'에 기록된 침미다례(沈美多禮) 집단의 실체를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침미다례는 해남반도에서 활동했던 마한 주요 세력으로 서기 369년 백제 근초고왕의 남정(南征) 과정에서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다. 안호리·석호리 대지유적 고분군과 소멸 시기가 일치해 눈길을 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정유라 "이대 전공 모른다"

어제 귀국...檢, 부정입학·외국환 거래법 등 조사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가 덴마크에 은거해 사실상 도피 생활을 시작한 지 245일 만에 강제송환돼 검찰 특별수사본부로 압송됐다.

정씨는 지난 31일 오후 4시 21분께 검찰 승합차를 타고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해 곧장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가 있는 10층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변호인으로 선임한 이경재, 권영광 변호사와 접견을 하고 나서 오후 5시 30분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날 정씨를 상대로 ▲이대 부정입학·학사비리 관련된 업무방해 혐의 ▲삼성의 승마 지원 등 제3자 뇌물 혐의 ▲독일 부동산 구입 등과 관련한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등을 기소하면서 정씨를 업무방해 혐의 공범으로 입건했으나 수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정씨 사건 처리를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검찰은 삼성이 독일 법인인 코어스포츠(비텍스포츠로 개명)로 보내준

돈 78억원가량이 대부분 정씨를 위해 쓰인 점, 정씨가 어머니와 더불어 코스모스의 주주였다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삼성 측의 자금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정씨의 관여 여부를 규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씨는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계를 장기간 지켜본 인물로 알려져 그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그는 이날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에도 "제가 모든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별로 없다"면서 검찰 조사를 앞두고 단단히 방어막을 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자정 무렵까지 정씨를 조사하고 구치소에 보내 휴식하게 한 뒤 1일 다시 불러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씨의 체포 시한은 2일 오전 4시 8분까지다.

검찰은 조사 대상 의혹이 광범위하고 정씨가 국정농단 수사 본격화 이후 해외에서 도피 행각을 이어온 점에서 도주 우려 등을 들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연남뉴스

오늘부터 전국 해수욕장 순차적 개장

내달 7일 보성 울포 등 3곳

전국 해수욕장이 1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올 여름을 시원하고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6월 1일부터 전국의 해수욕장을 차례로 개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는 전국 257개 해수욕장이 평균 44일 정도 운영될 예정이며, 다양한 축제와 행사가 열려 국민의 여름휴가를 풍성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개장 첫날인 1일에는 해운대·송정·송도 해수욕장(이상 부산), 협재 해수욕장(제주) 등 4개소가 개장하며, 무더위가 절정에 이를 7월 24일경 마지막으로 송이도 해수욕장이 개장할 예정이다.

전남엔 모두 57개의 해수욕장이 있는데, 다음 달 7일 안도 신지 명사십리(사진)와 보성 울포, 영광가마미 해수욕장 등 3곳이 가장 먼저 개장한다.

가장 일찍 폐장하는 해수욕장은 전남에 있는 수문·송호·사구미·송평·돌머리 등 5개 해수욕장으로 8월 13일까지만 운영되며, 가장 늦게 폐장하는 송도 해수욕장은 9월 11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또 해운대(부산), 대천(충남), 경포(강원), 오류고아라(경주), 협재(제주) 등 60



여기 해수욕장은 아간 개장을 해 아름다운 밤바다의 정취가 담긴 색다른 해수욕장의 매력을 느껴볼 수 있다.

개장 기간 전국 각지의 해수욕장에서는 하와이안 페스티벌(부산 해운대), 전국노래자랑(부산 송도), 조선해양축제(울산 일산), 전국 해안스포츠제전(충남 대천), 공군 에어쇼(경포)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한편, 해수부는 6월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맞춰 관할 해양경비안전서 등과 함께 해수욕장 현장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종형기자 golee@연남뉴스

本 社 人 事

- ▲김민준 : 서부취재본부 남약주재 차장
- ▲김대수 : 동부취재본부 광양주재 기자 (6월 1일자)
- ▲김경원(동부취재본부 광양주재) 의원 면직 (5월 31일자)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광공인중개사

상 가 건 물

1.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억원(보1,500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00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50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신창동 3층 상가건물 대1,050㎡ 매50억원(보6억 월2,000 포함)
6. 북구 우산동 5층 상가건물 대336㎡ 매18억원(보1,200 월900 포함)
7. 월산동 6층 상가건물 대397㎡ 매17억원(보1억 월1,0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 가 주 택

1. 산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보2,700 월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00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 장 / 토 지 / 기 타

1. 용두동 북광주IC 인근 대로변 공장4동 대6,150㎡ 매58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임야448,600㎡ 매6.6억원
3. 신가동 생산단지 담745㎡ 매3.66억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전,207㎡ 매2.9억원
6. 산월동 자연녹지 택지조성완료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층일반주거 전2,115㎡ 매2.8억원
8. 매곡동 대광로제비양 1층 상가 주출입구근로 7㎡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010-2572-4663 **홍창경**
북구 문화예술회관 근처

태성공인중개사

상 가 / 상가점포

- 금호동 상가건물 대 370㎡ 건물2,000㎡ 매 32억원
- 금호동 상가건물 대 600㎡ 건물2,100㎡ 매 36억원
- 치평동 5층 상가건물 대 360㎡ 건물 1,150㎡ 매 25억원
- 하남동 5층 상가건물 대490㎡ 건물2,000㎡ 매 40억원
- 하남동 3층 상가건물 대990㎡ 건물1,890㎡ 매 50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원(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입점 매 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월곡동 5층 상가건물 대 440㎡ 건물 1,500㎡ 매 25억
- 쌍암동 4층 상가건물 대 610㎡ 건물 1,100㎡ 매 29억
- 쌍암동 5층 상가건물 대 650㎡ 건물 2,200㎡ 매 35억
- 신가동 4층 상가건물(일반상업지역) 대308㎡ 건물1,861㎡ 매 14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 건물500㎡ 매 13억

토 지

- 용전동 생산단지, 대로점 9,400㎡ 매 48억원
- 산정동 생산단지, 창고용지 3,810㎡ 20억
- 산정동 생산단지 창고용지 도로점 990㎡ 5억원
- 광산구 대산동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45억 (물류창고, 아적장 적합)
- 광산구 내산동 임야 36,000㎡ 매 3억
- 남평동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담 3426㎡ 4억2천만원 (가든식당 적합)
- 장성군 삼서면 홍정리 대지 1316㎡ 매1억4천(지대농용, 남향)
-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계획관리지역 전 5,000㎡ 매 8억3천
- 담양군 월산면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16억원
- 담양군 남면 학성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1억원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

어싱 매트셋트 동별 대리점 및 영업인력 모집

1. 대리점 마진 개당 30%(약 100만원) - 영업노하우 전수
2. 영업인력 판매마진 개당 15%(약 50만원) - 현금, 신용카드 (세금 부담 없음)

★대리점 및 영업인력은 겸업, 프리랜서, 주부부업 가능
★어싱매트셋트 기능(21세기 자연치유의 최고봉-어싱)

땅과 접지를 통하여 모든병의 근본 원인인 활성산소, 염증제거, 혈액순환, 몸속정전기 제거, 전자파차단 등으로 탁월한 자연치유 및 질병예방기능

※ 점점 질환자들이 늘고 급속한 고령화 추세에 향후 새로운 유망사업으로 주목받고 있음.

어싱코리아 광주지사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232-8 동진빌딩 2층
H. 010-8600-0484
(062) 263-9429